

사김의교회 다락방공과

아브라함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김의
교회

CONTENTS

들어가는 말	06
1과 말씀에 따라가자 창 12:1-9	10
2과 다시, 처음 예배하던 그 곳으로 창 12:10-20	16
3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 13:14-18	22
4과 나의 방패, 나의 상급 창 15:1-7	28
5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 18:13-14	34
6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창 18:17-19	40
7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창 22:1-4	46
8과 미션얼 교회 창 12:1-3	52
9과 용서의 용기 몬 1:1-25	58

풍성한 다락방을 위한 가이드

1. 다락방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2. 다락방 교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찰 및 생각하기, 묵상과 적용 문제로 미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락방 나눔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3. 다락방 나눔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연구모임으로 흐르거나 한 주간의 삶만 나누면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4. 다락방은 관계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다른 성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5. 다락방 나눔 시, 나눔을 하시는 성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할 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공과 나눔 시간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다락방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서약서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함께 서약합니다.

1. 우리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주님께서 우리 순장을 다락방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순장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술, 도박, 불건전한 오락 등)를 금하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3. 우리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4. 우리는 다락방 모임 시 말씀을 나눌 때 누구든지 혼자서 말을 독점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모든 순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5.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나눈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6. 우리는 다락방 모임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세워 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우리는 순원 상호 간에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 등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다락방명: _____

성명: _____

들어가는 말

2025년 2학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고대의 한 인물에 대한 탐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핵심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인간중심적인 가치관)과 같은 어두운 역사를 끊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쉽지 않은 요구였고, 가야 할 목적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순종의 도구로 삼으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학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를 배워 보려고 합니다. 절망과 아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과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과 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종’으로 읽히지며, 그에게 나타나는 영

광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걸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부족함이 많은 공과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다락방 공과이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는 2학기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여러분의 담임목사, 유병휘 드림

아브라함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중요성

아브라함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그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기초와 틀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작과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위대한 시작을 장식한 네 족장(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 한 명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모세의 첫 번째 글로서, 이 책은 독자들을 나머지 네 책(출애굽기~신명기)과 성경 전체로 인도하는 전주곡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도들이 성경의 나머지 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자 크고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축복과 약속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세계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다루는 중심내용 중 하나인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의 근간을 이룰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는 모두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됩니다.

(2)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증거

창세기의 큰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을 구별된 독특한 위치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세상이 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인류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축복은 그가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것에 달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보호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며, 이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3) 믿음의 여정과 성화의 과정

아브라함은 때때로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의 삶에는 연약함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그는 여러 시험 앞에 넘어지거나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추격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성도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4) 구속사의 흐름과 역할 모델

창세기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위대한 구속사를 가장 먼저 들려주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정점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러한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를 위한 원형(原型)이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도 결함이 많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훈련시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의 시작을 상징하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핵심 인물입니다.

1과 말씀을 따라가자

📖 창세기 12장 1-9절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라 하신지라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나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매우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11장은, 처음 창조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온통 암울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아담)의 죄로 인해 창조의 아름다움은 모두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인이 된 아담의 길을 따라가려는 '아담형 인류'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6:5-6)

창세기 1-11장은 이러한 인간의 죄와 그 죄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11장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흠어 버리십니다. 과연 이러한 '죄와 벌'의 악순환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이 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죄와 벌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 되어, 이스라엘이 가야할 길,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가야할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학기, 아브라함을 공부하며,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사귄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들어가면서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방학은 어떠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학기를 맞이하는 소감과 기대를 이야기 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날았고’입니다(참고. 창11:10-26). 이 반복은 생명의 화음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등장하자 일종의 ‘불협화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 11:30)

2.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창12:1)

3.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하고 있던 고통과 그가 보여준 즉각적인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주어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11장까지 온통 주어가 ‘나’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나의 말,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혜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니”, 모든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입니까?

4.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2개의 장소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창11:31; 창12:4; 창15:7). 이러한 장소의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 11:27-28)

5.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묵상과 적용

1. 아브라함(사라)의 불임은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볼 때,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교훈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그리 심사숙고 하지 않고 결정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창12:4; 히11:8)

3. 길 떠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순종을 만들었고, 그 순종의 첫 걸음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어거스틴(Augustinus)이 쓴 '기독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 제2권 40 장을 보면, '이집션 골드(Egyptian Gol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우상에게 바쳤던 예물(금, 은, 보화)을 상당수 가지고 나왔습니다(출 12:35-36).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이 우상의 제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출25:1-8). 어거스틴은 이 점에 착안하여 자신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집션 골드'의 개념을 통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꿈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삶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이집션 골드'는 무엇 입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창12:4)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인생의 주어를 '나'로 설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모든 일을 기도하며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주님, 당신께서 사용할 만 하시다면, 저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과

다시, 처음 예배하던 그 곳으로



📖 창세기 12장 10-20절

-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씀나눔

하나님의 구원에는 즉각성과 점진성(The Immediacy and Progressive-ness of Salvation)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 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흠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수없이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라났던 것입니다.

오늘 공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을 보여줍니다.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러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공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시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 12:9-10).
2.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지금 그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3. 아브라함은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12:11-13)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풍랑이 일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 보다 풍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에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느닷없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애굽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4. 아브라함의 임기응변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창12:16-17)

5.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참고. 시 23:6; 시139:7-10)
6.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아름다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13:3-4)

묵상과 적용

1.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굽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건져 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과 든든함은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의 긴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까?

3. 아브라함은 애굽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것 대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뻘엘에 이르며 뻘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13:3-4)
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애굽(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너무나 자주 애굽으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애굽을 잃어버렸다고 아파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 창세기 13장 14-18절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나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의 마음은,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걷는 것을 말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나도 몰랐던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넘어져 보았기에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행’이라는 흑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 그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오늘 공과를 통해서는 광야를 지나 한층 성장한 아브라함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도 성장과 성숙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형제, 자매를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다락방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향해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하나님에 의해 애굽을 벗어난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했지만(창13:5-6), 동시에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가 겪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
2. 물질적인 욕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13:8-9)
3.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13:10)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은 온갖 음란행위로 가득한 쾌락의 도시였고, 공평과 정의는 사라진 채 폭압과 억울한 울부짖음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부요와 편리함', '힘과 영향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다보니, 그는 외향적인 화려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욕망이 주는 위험성보다, 욕망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게 됩니다.

4.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창13:14).

목상과 적용

1.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 아브라함의 선한 결심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롯을 향한 양보 이후에도,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해주기도 하고(창14:16),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 십일조를 드리기도 합니다(창14:20).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결심이 있습니까? 공과를 통해 깨닫고 다짐한 바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창13:14)
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세상 앞에서 자주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소동을 선택했던 롯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과

나의 방패, 나의 상급

📖 창세기 15장 1-7절



- 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니라
-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4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말씀나눔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결단하고 나면, 시험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롯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공과를 통해,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과 섭섭함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다루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금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오늘 공과는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창15:1)

2.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창15:1)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하는 은지와 은지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같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민찬이와 민찬이 엄마가 나옵니다. 은지 엄마는 누구보다 민찬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린 아이를 처음 병원에 입원시킬 때의 그 무너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민찬이 엄마를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병원 생활도 안내해 주고, 또 잘 될 거라고 용기도 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찬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심장을 기증받게 됩니다. 민찬이에게 수술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서, 은지 엄마도 함께 축하해 줍니다.

“민찬이 엄마, 이건 기적이예요.”

이 순간, 드라마는 갑자기 시간을 저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병원후계실에서 오열하고 있는 은지 엄마를 보여줍니다. 은지 엄마의 대사는 없습니다. 그냥 뺨을 잃고, 큰 소리로 울기만 합니다.

3.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15:1)

4.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을 확인해 봅시다(창15:7-8).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묵상과 적용

1.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겪었던 두려움과 섭섭함을 자주 경험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람’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봅시다.

2.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나의 의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창15:17-18).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예) 나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다른 이들과의 세상적 비교 속에서 늘 속상해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3-14절

-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나눔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큼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지나야 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기다림'이라는 언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욱 온전해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

오늘 공과는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소개합니다. 그는 기다림이라는 언덕을 잘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언덕을 오르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기다림의 미학(美學)'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공과를 통해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또는 누군가를 가장 기다렸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창 16:3)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말씀을 생각할 때, 그의 형편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12:2; 창16:2)
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17:1)
3. 다시금 언약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17:10-11)

하나님은 언약에 진심이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약속을 몇 번이나 더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무서운 기세로, 절대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으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게다가 이제는 말로 약속하는 것을 넘어 몸에 새겨 주십니다.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을 보며 기다리고 인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무척이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꾸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창17:7; 창 18:12-13)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 생각해 봅시다.

목상과 적용

1.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징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떠오르는, 나만의 징표를 만들어 봅시다.

2.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다림의 다짐을 고백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4)
예)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조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 창세기 18장 17-19절



-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 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나눔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실력은 좀 부족해도 불필요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결단도 진심이었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겠죠? 오늘 공과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공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 소개됩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람을 통해 세우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의 동역자로 준비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한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까? 교회와 다락방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하나님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창 18:20-21). 이 순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합니까?(창18:22-25)

2.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창18:24-33) 그리고 아브라함 이 갑자기 기도를 멈춘 이유도 생각해 봅시다.

3.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창18:19; 참고. 시 89:14; 신16:18-20)

여기서 말씀하는 ‘의와 공도’는 히브리어의 ‘미쉬파트’와 ‘츠다카’입니다. 이 단어들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쉬파트’는 법적인 공평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의 법 집행이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힘과 재물이 있다고 봐 주고, 그렇지 못하다고 처벌을 더 강한 처벌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공평함이, 바로 미쉬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츠다카’는 이것에 더해 관계적인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법적인 공평함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 요구하다보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잘못했으니 똑같이 한 대씩 때리고 끝내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유치원생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 있는 처지를 고려하면서 관계하는 것이 츠다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러한 ‘미쉬파트- 츠다카’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4. 소돔에 ‘미쉬파트’와 ‘츠다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창18:20; 참고. 사5:7)

이스라엘에는 ‘미쉬파트’는 없고, ‘마쉬파흐’(포학)만 있었습니다. ‘츠다카’ 보다는 ‘츠아카’(부르짖음, 울부짖음)만 가득했습니다. 소돔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에는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대’는 없고 ‘환락’만 가득했습니다. ‘부’에 집착했고, ‘성’을 탐닉했으며, ‘힘’을 숭상하는 타락한 사회의 전형이었습니다.

묵상과 적용

소돔의 멸망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정 먼저 '기도'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일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자 소중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다락방, 교회, 삶의 자리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될까요?

2.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미쉬파트'와 '츠다카'가 실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를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미쉬파트-츠다카'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3.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꿈'(미쉬파트-츠다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묵상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

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돔과 같은 곳에 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소돔이 그러했듯이, '미쉬파트'와 '츠다카'를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사겔의교회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우리 사겔의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창세기 22장 1-4절

-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나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창21:1)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공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가졌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시험은 언제나,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약1:2).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Test)이든, 사탄의 시험(Temptation)이든, 결국 모든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림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 22:1-2)

2.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상상해 봅시다.

이삭은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단다.”

“아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군요? 너무 기뻐요. 아버지.”

“.....”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그 때, 아들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왜 제물도 없이 우리만 가는 거죠?”

3.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22:2)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돌로 단을 쌓은 다음, 나뭇가지와 장작으로 불을 지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창22:11-22 요약)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애정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창22:3; 22:9-10).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11:17-19)

묵상과 적용

1. 나에게 있어서 ‘이삭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아브라함은,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몫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창22:16)
예)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에 매이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의 이삭들을 나의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에게도, 이삭에게도 가장 복된 길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과 미션얼 교회

창세기 12장 1-3절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라 하신지라

말씀나눔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경영 계획은 무엇인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소개 중 하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마음과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일관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사명 또한 ‘선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가 일종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선교적 삶’(Missional Life)이 되어야 하고,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선교’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공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선교’나 ‘선교사’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둘째,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셋째, 그가 자신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넷째,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1.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 지자(창6:5-6),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부르십니다(창7:1).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와 온가족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후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9:19)
2. 하지만 인간은 더욱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창11:4)
3. 하나님은 왜 흠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왜 그토록 흠어짐을 면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창11:9)

4. 흠어짐을 막으려 하는 인간의 대응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누구이며,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12:1-3)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은 바벨 땅의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원천, 발사대로 삼기로 하신다. 그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늘의 천군천사들조차 혁, 하고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251쪽>

5. ‘선교’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12사도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찾아봅시다(출19:5-6; 행1:8).

목상과 적용

1.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창12:2).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교적'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2.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결단과 다짐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12:2)
예)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흠여지라는 말씀대신 흠여짐을 면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과 용서의 용기

📖 빌레몬서 1장 1-25절



-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 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 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 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 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 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나눔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시에 위치한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딜런 루프’라는 이름을 가진, 21세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체포된 이후 ‘인종전쟁’을 시작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명의 사망자 유족들이 저격범인 딜런 루프에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공개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미국 사회에 용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용서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양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용서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 워싱턴포스트(WP)에는 이런 논평이 실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흑인의 용서를 당연시하고 칭송하면, 결국 백인만 보호받는다. ... 그만큼 백인은 인종차별의 폭력이 야기하는 피해를 부정하기가 쉬워진다. ... 우리의 끊임없는 용서는 공격과 학대의 악순환을 지속시킬뿐이다. ... 또한 성급히 용서하기 시작하면, 가해자의 불의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 <워싱턴포스트, 2015년 6월 22일>

자꾸 용서를 얘기하면, 가해자는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또 다른 언론의 사설에서는 쉽게 용서하라고 외치는 일종의 ‘용서의 남용’의 원인이 ‘기독교’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설의 제목이 ‘To Hell with forgiveness culture’(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였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문화 때문 일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매우 미련하고 생각 없는 행동, 매우 부당한 요청쯤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용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도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5년 마지막 다락방 공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용서 받은 우리’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가득하거든, 여러분도 ‘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같이 너도 가서 용서하라!”

들어가면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용서의 어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 ※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해서, 함께 빌레몬서의 배경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빌레몬서 전체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1.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빌레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몬1:12-16)

3.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까요?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몬1:17-22)

목상과 적용

1. 여러분에게도 ‘오네시모’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교회에 찾아온 도전은 신사참배의 문제였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한국교회에 찾아온 도전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를 한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여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배교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좁은 땅에 수많은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이름의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런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흘러온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다른 지체를 향한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신 그 사랑,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용서하라.”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몬1:11)

예) 무익한 나를 유익한 자라 말씀하시고 존귀한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유익한 자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선을 그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사귄의교회에가득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김의
교회